손끝 발끝에서 주렁주렁

(롬12:1~2)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손끝 발끝에서 주렁주렁>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손끝 발끝에 주렁주렁
'주렁주렁'이라고 하는 말은 의태어가 되나요?
한번 그렇게 상상을 해 보시면 됩니다.
손끝 발끝에 주렁주렁,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손을 움직일 때마다, 우리가 발을 옮길 때마다 그 손끝과 발끝에서 주렁주렁 하나님의 뜻이 보이도록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의 본뜻입니다.
내가 손을 움직일 때마다 손끝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탐스러운 과일처럼, 이제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사과가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배가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지금 탐스런 복숭아가 마트에서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열매가 맺혀지듯이 내 손끝과 발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삶.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마음에서 깨달아져야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지요.
자, 이렇게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 질 때에, 우리는 그 뜻을 마치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내 소원인 것처럼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약시대 때도 율법으로도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거듭 말씀 드리지만 내 바깥에 제시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는 따로 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은혜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내 바깥에서 내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깨달아집니다.
분별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깨달아짐으로써, 그 뜻이 내가 손으로 발로 옮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이, 장애가 없이, 거부감이 없이 다 이루어져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보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 그랬어요.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에서 하나님에게 좋다고 느껴지는 것, 그게 선한 겁니다.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한 것이고, 그리고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마음에 그야말로 기쁨을 얻으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고, '온전하다'라는 뜻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온전하다 하는 이 말 뜻은 헬라어의 목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텔레이오스'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반드시 뜻한바 목적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담겨지면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한 뜻이 내 손끝과 발끝에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내 손끝에서 발끝에서 하나님의 뜻이 복숭아 열매 맺듯이, 사과 열매 맺듯이 아주 탐스럽게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라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는 그 통치에 굴복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통치하는 그 통치를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손끝과 발끝에서 주렁주렁 열매 맺히며 살 수 있을 것인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는 통치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의 공중권세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고, 거기에 굴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여러분의 회사의 사장님 다~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으면 지금 마귀의 통치에 굴복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마귀의 통치를 벗어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 수 있겠느냐, 또 마귀의 통치아래에서 굴복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뭐냐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 새롭게 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분별됩니다.
그래서 내 손끝과 발끝에, 내 뜻이 아니라, 사장님의 뜻이 아니라, 아내의 뜻이나 남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거예요.
이왕이면 손끝과 발끝에 누구의 뜻이 맺혀지면 좋은 겁니까?
내게 경제적으로 따져서 누구의 뜻이 맺혀지는 게 내게 유익한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100수, 1000수를 앞을 내다보시고 계획하고 계시니까, 나는 1000수를 내다볼 필요도 100수를 내다볼 필요도, 단 두 수 세 수를 내 인생의 앞을 내다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손끝과 발끝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되는데,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하면 된다 이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알려지게 되면서, 내 마음 속에 알려진 그 뜻이 마치 내 소원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게 되므로 열매를 맺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마음이 새롭게 됨을 경험하려면, 마음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데 마음의 속성이 뭐라고요?
언제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 마음은 비어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비어 있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채우는 것이 삶의 과정이 된다, 삶의 내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채움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뭔가가 차게 되면 만족함이 일어납니다.
만족함이 기쁨이 됩니다, 기쁨이 지속되면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다는 것은, 빈 마음의 공간을 채우는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빈 마음의 공간을 채울 때에, 내가 나로 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채우는 과정에 채워지는 대상이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빈 마음을 채우면서 산다는 것은 언제나 '너'라는 대상, '너'라는 위치에 있는 대상과 관계를 맺으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속성이에요.
비어 있기 때문에 채워야 되는데, 채우느라고 우리는 누구를 찾느냐 하면 '너'를 찾습니다.
이게 '나 너'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에서는, 인격적인 '너'와 비인격적인 사물 It, You 와 it을 구분합니다마는,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너'라고 하는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면 you 가 되는 거고, 사물이 들어가면 It 가 되는 거지요.

어쨌든 사람이든 사물이든, 사물은 뭐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예가 돈입니다.
돈을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드라마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내 안에 너 있다.'
이 말을 우리가 흔한 말로 바꾸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내 마음의 빈 공간 안에 들어와 있으므로 나는 지금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하다, 내 안에 너 있다.
이러한 속성에서 새롭게 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완전히 낡아빠진 배터리를 버리고 다른 배터리를 끼우는 것 같이 이렇게 새롭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식이라 그러면, 새롭게 내 마음을 차지한 그 마음은, 지금까지의 '나'가 아닙니다.
타자가 나를 대체시켜 버리는 것이지요.
이건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집을 인테리어나 보수공사를 통해서 집을 완전히 새집으로 만듭니다. 이런 뜻에서 새롭게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있어요. 고장난데를 수리하고 찌그러진 데를 다 펴고, 도색을 다시해서 완전히 새 차처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의 속성이 비어 있어서, '너'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대상을 찾아서, 그 '너'를 마음속에 넣으면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이 관계가 새롭게 된다는 것이고, 관계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너'가 새로운 '너'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너'가 새로운 '너'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이가, 하여간 틈만 있으면 컴퓨터 앞에 붙어서 오락을 합니다.
진짜 경험했던 얘기에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의 집사님 아들이, 고3 4월까지도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얘가 5월부터,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엄마도 몰라요) 컴퓨터를 다 빼서 광에다가 집어 넣어버리고 공부만 해요.
그래서 아주 좋은 대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뭐 원래 좀 실력이 있는 애였던 모양이지요.
이게 바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있다가, 그 컴퓨터가 없어지고 대학입시 공부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들어온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롭게 됨과 연관 지어서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너'와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너'를 찾는 범주가 있어요.
'너'를 찾는 영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너'를 찾는 범주에서, 동일하게 '너'를 찾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범주에서 '너'를 찾으라는 얘기에요.
이 얘기를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 왕이 했어요.
전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를 한 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제가 읽는 동안에 한 번 솔로몬의 마음을 한 번 느껴보세요.
새로움과 관계되는, 마음이 새로워져서 신선한 그런 마음상태인 것과, 지금 이 전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읽어 내려가는 동안에 솔로몬의 마음상태가 얼마나 새로운 것과는 반대에 있

는 지쳐있고 피곤하고 낡아져 있는가를 한 번 느껴보시라는 얘기에요.

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10절에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한 모든 말을 다 함축하고 있어요.
모든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바다로 흐르게 되는데 모든 강물이, 세상의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이게 마음의 빈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만물이 왜 피곤해요?
만물을 바라보는 솔로몬의 마음이 지금 피곤한 것이지요.
그 피곤하다는 것은 사람이 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다시 말해서, 이 육체에 달려 있는 눈으로 보는 어떤 것을 가지고, 마음에 채우려고 해봐도 차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차지 않는다.
귀로 들어도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세대 사람들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너'를 찾는 영역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해 아래서는 어떤 '너'를 바꾸어 봐도 내 마음이 새롭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자 친구를 사귑니다. 아 근데 바람기가 있어요, 남자가.
여자 친구를 바꿉니다, 또 바꿉니다, 또 바꿉니다.
그래도,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 친구를 사귀었는데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B 라는 여자 친구를 다시 사귀어 봐요.
그래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C라는 여자 친구를 다시 사귀어 봐요, 그래도 만족하지를 않아요.
솔로몬의 재산이 지금까지도 인류역사상 가장 부자랍니다.

그때 걸 전문가들이 환산을 해보면 역사상 가장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 왕이 권세와 부요함 안에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려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려본 겁니다.
근데 마음이 차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것은, 아직 솔로몬과 같은 자리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가져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모르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면 '해 아래 새것이 없도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해 위에서 있는 누군가를, 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너'로 관계를 하지 않는 한, 마음은 새롭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마음은 차지도 않고 새롭게 되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해 아래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있는 것들을 '너'로 관계하는 마음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통치아래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 이거에요.
근데 왜 그걸 본받느냐 이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돈으로 채우고 기뻐하겠다고 해서, 나도 따라서 돈을 많이 벌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건강 장수를 바란다 그래서, 해 아래에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왜 그런 사물과 이 세상의 해 아래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너'로 삼아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너'로 삼아 마음을 채우고 만족하려고 하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통치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너'로 삼아야 된다 이겁니다.
'너'의 자리에 모셔 들여야 된다 이거에요, 하나님을.

그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일어난 게 복음이에요, 기쁨의 소리입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너'가 되어 주실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죽어요?
해 아래에 모~든 '너'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너'의 자리에 오셔서, 내 마음 안으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해 아래 모든 '너'에 대해서 죽었다고 고백을 하고, 인정하고 기다립니다, 참고 기다립니다.
참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빈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너'의 자리로 오시면서 내 마음을 채워줍니다.
이때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새롭게 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내 마음이 지금 새롭게 되느냐 안 되느냐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나 하면, 기도하기 전까지 세상일이 마음에 무거웠어요.
세상일이 걱정이 되고, 세상일이 크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타고 이륙해 가지고 구름 위로 올라가서, 비행기가 앞으로 나갈 때 땅을 내려다보면, 히말라야 산맥도 꼭 코딱지만하게 보여요, 좁쌀알만하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들어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하기 전까지 크게 보였던 세상 문제가 정말 좁쌀알만하게 보이고,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던 세상일이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는 얘기에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세상의 사업이 '너'의 자리에 있어가지고 내 마음을 꽉 채워 놓은 바람에, 내 마음이 잘 안 되는 사업 때문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자식문제가, 자식이 '너'와의 자리에서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 안에 너 있다 이 고백처럼, 그래서 자식의 문제가 잘 안 되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자식에 대해 죽어요, 사업이라는 '너'에 대해 죽어요, 돈이라는 '너'에 대해 죽어요, 건강이라는 '너'에 대해 죽어요, 내 인생의 미래라는 '너'와의 대해 죽어요, 내 인생의 비전이라는 '너'에 대해 죽어요.
그러면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이 모~든 것이 아무 문제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바로 이때 비행기를 타고 세상을 내려다 볼 때처럼, 내 마음에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겁게 느껴졌던 일들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좁쌀처럼 작게 보일 때에, 천기가 누설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왜 하나님의 뜻이 안 알려지느냐?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이 세대를 본받아서, 돈이 많이 벌리면 기쁘고, 사업이 잘 되면 기쁘고, 아이가 서울대학 들어가면 기쁘고, 이런 세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본받음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사업이 잘돼서 기쁜 그런 마음 상태에서는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질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이 벌려야 내 마음이 기쁜 그런 마음 상태로는, 돈! 나의 경제 형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알려 질 수가 없습니다.
아이의 서울대 입학이 내게 기쁨이 되는 그런 마음의 상태, 세대를 본받고 있는 마음의 상태는 절대로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분별이 되어 알려질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천기누설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는.
왜냐하면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라도 다 왜곡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라야 됩니까?
해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지금 여기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라야만,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알려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는 이 얘기는, 1절에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쓰임 받는 인생이 되라는 이야기를 다르게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바쳐진 몸을 내가 내 몸을 내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는 폐품이 되도록 해 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몸을 사용하시는 것이고, 내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내 몸을 사용하시면서 쓰임을 받을 때, 내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알려져서 천기가 누설이 되어서, 그 뜻대로 내가 행동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앞뒤가 합쳐진 얘기라는 거예요.
1절과 2절이 이렇게 동전의 앞뒤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보면, 내가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재활용하듯이, 내 몸을 사용해서 당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뒤에서 보면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알려지게 되므로, 그 뜻을 손끝과 발끝에서 주렁주렁 열매 맺어가는 것이라 이겁니다.

손끝과 발끝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게 되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손끝과 발끝에서 주렁주렁 열매 맺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해 위로 마음이 올라가므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그래서 이 세상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본받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해 위에 계신 아버지가 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실 '너'의 자리에 오시므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고, 그 뜻이 손끝과 발끝에서 주렁주렁 열매 맺는 복된 삶이 오늘 하루 종일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